



『도대체 여성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
오?』 허물없는 사이의 아들이 실심참
게 던지는 뼈가 들어있는 농담조의 질문
이다. 이것은 다섯 손가락을 두번이나 꼽
았다. 이것은 할 만큼의 해수를 여성단체에서
기식(寄食)한 나에게 물어볼만
한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는 으레 『여성단체가 없
어지는 일을 하고 있지요』라고
농담조의 진담으로 응수하곤
한다.

기실 생각하면 여성단체의 존
재이유는 여성들만이 모여서 할 일이 있
기 때문이며 언젠가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는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에 관한 자세한 기록
은 없으나 단편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18

96년에서 1898년 사이에 시작해서 개화
기(開化期) 이래 조직되었던 여성단체의 수
는 1백60개를 헤아린다고 하며 현재 올
직이고 있는 단체수는 60여개가 된다. 그
중 2개 단체가 72년과 73년에 창립 50주
년을 자축(自祝)한바도 있고 보면 상당한
업적(業績)이 있으려니와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 오늘날의 여성운동의 기록을 이룩한 것
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60여개 단체중 대부분이 5·16
군사혁명 이후 조직된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래에 와서 여성들의 할 일이 증
대(增大)되었다거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
었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에는 석연치 않으며 우후죽순처럼 날로 단

“없어지기” 위해 있다

체가 늘어만 가는 것은 분명히 기현상(奇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그것은 단체들의 목적, 하는 일
이, 하는 사람들이 뚜렷이 다른 것도 아니니
수량적(數量的)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 큰
의의(意義)를 지니는 것
이 아닌것 같다.

어느세미나」에서 분
석되었듯이 여성단체가
주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도 결
여되어 있어서,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이 제
3자의 피상적인 평가라고 하겠으나 시기
에 적합한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는 것
은 자타(自他)가 공인하는 터이다.

무질서한 난립(亂立)현상과 경쟁적인 대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자 莫 淑

립 및 비협조적인 자세는 물론 많은 여성
단체들이 지도력·조직력·재정력(財政力)에
있어 역부족(力不足)의 현상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도저히 체계있는 여성운
동을 기대할 수 없다. 도약할 수 있는 길이
란 자원(資源)을 묶어서 공동전선을 펴는
데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개체단체의 활
동도 이제는 전문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은
오늘의 당면과제가 문제의식과 의욕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선정된 과제가 여성들과 직결된 문제가
여야만 한다는 것도 설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체의 존재가치(存在價值)는 문을 닫았
을때 알게 된다고 한다. 오늘 여성단체가
문을 닫았다고 할때 과연 누가 애석해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의 여성단체의 값어치
가 될 것이다.